“티베트 불교 발전, 졸업생에 달렸다”

티베트 자치구 서장불학원 졸업식…320명 졸업

2011년 설립, 1580명 배출
전통 · 현대 결합 특별 교육
비구니 석사학위 최초 수여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6월 30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에 소재한 전문 불교대학인 서장불학원(西藏佛学院)이 2024년도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을 봉행했다. 올해엔 320명의 비구·비구니스님들이 졸업했다. 7월 1일, 중국의 ‘신화망’ ‘중국서장망’ 등 현지언론들은 서장불학원 졸업생들의 포부와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11년에 설립된 서장불학원은 현대적인 교육체계에 전통적인 강원 교수법을 결합한 티베트 지치구 최초의 고급 티베트 불교 종합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필수적인 교학과정 외에도 역사, 외국어, 법률, 컴퓨터 등의 새로운 교육과정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은 티베트 불교의 5개 주요 종단에서 심사를 거쳐 선택된 출가자들로 현재 900여 명의 학인스님들이 등록돼있다. 지금까지 이곳을 졸업한 스님들은 1580명으로 이 중 60명은 다양한 종단에서 환생자로 밝혀진 스님들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9명의 환생자들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행사 당일 환생자스님들은 졸업식장에서 전통적인 티베트 불교 토론인 ‘담짜’를 선보였다. 특히 수석으로 졸업한 아왕 롭상 샹박둡 린포체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특수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후에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처음으로 비구니스님들에게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치람빠’ 학위가 수여됐다. 비구니 교과는 2014년에 처음 설립됐으며 역시 불교 교학과 현대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된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비구니 스님들은 29명으로 지난 6월 20일 진행된 교학논술고사와 논문발표 시험을 치렀다.


졸업식에서 전통적인 경전 토론 ‘담짜’를 선보이는 졸업생들. 사진출처=중국서장망

수석으로 꼽힌 텐진초모 스님은 “서장불학원에 지원한 후 6년 동안 교학을 연찬하며 심도 있는 불교철학의 지식을 습득했다”면서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보다 논리적인 사고와 작문실력이 많이 향상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이 사부(士夫)를 헤아리는 능립의 근거〉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을 티베트어로 작성하여 발표했다.

서장불학원의 두캉 툽텐캐둡 원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새로운 세대의 비구·비구니스님들이 이제 훌륭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티베트 불교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이는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티베트 불교의 발전은 졸업생들에게 달려 있으며, 학교를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불법을 연구하고 동시에 인류문명의 모든 성과와 현대 과학과 문화적인 지식을 배워 시야와 정신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印, 불교 성지 순례 비밀회의 ‘보디 야트라’ 개최

6대 불교 성지 품은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 활성화 목표

지난 6월 29일 인도 영자신문 ‘더 스테이츠맨’은 뉴델리에 부처님 깨달음의 자취를 돌아보는 성지순례 관련 비밀회의 ‘보디 야트라’를 개최 소식을 전했다. 비밀회의에는 불교 성지 순례지로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중요성과 관광 잠재력을 강조했다.

보디 야트라에는 인도 관광부 장관,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문화부 장관, 연합관광부 장관 및 인근 국가 대사 등 주요 관계자와 국제불교평의회 회원, 학계 인사, 국내외 기관 대표, 관료, 여행작가, 블로거 등도 참석했으며 인도의 강력한 국제적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보디 야트라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탄생부터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삶을 묘사한 공연을 감상하고 불교 기초교리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풍부한 연관성을 기념했다. 또한 불교 성지 순례가 국내외 방문객 모두가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디 야드라는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부 에샤 프리야 특별장관의 발표로 시작했다. 그는 “풍부한 종교적 다양성과 역사를 가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는 6대 불교 성지인 산카샤, 사르나트, 슈라바스티, 룸비니, 코삼비, 쿠시나가르가 있다”면서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순례자에게 화두를 던지는 장소로 매년 성지 순례를 위해 수많은 불자가 방문하는 인도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부탄 투자로 바라나시에 8000㎡(2420여 평)규모의 사원과 게스트하우스를 건설 중이다. 모든 국가에 6대 불교 성지 관광 부문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협약 체결 시 불교 성지 관광 개발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투자 친화 관광 정책을 설명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자이비르 싱 문화관광부 비서가 가젠드라 싱 셰카왓 인도 관광부 장관에게 ‘보디 야트라’의 시작을 기념하여 불상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더 스테이츠맨

가젠드라 싱 셰카왓 인도 관광부 장관은 “인도는 ‘부처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부처님은 전 세계에 진리, 비폭력, 친절과 자비의 메시지를 주었고 우타르프라데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 정책 중 첫 번째는 불교 성지”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디 야트라’를 개최한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계자에 감사를 표한 장관은 “불교 순례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 나은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 관광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르가 샹커 미슈라 우타르프라데시주 수석 비서관은 “우타르프라데시는 불교의 요람이며 보디 야트라는 관광 부처 관계자들이 부처님의 적정(寂靜)과 불성(佛性)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주정부와 관광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관광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캐나다 윈저 최초 불교 사원 개원

주택 지하서 열린 임시 법회서
불자 주도로 모연 불사 추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있는 캄보디아 불교 사원 전경. 사진출처=CBC

지난 7월 1일 캐나다의 ‘CBC 뉴스’는 캐나다 캄보디아 불교 사원 개원 소식을 전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캄보디아 불교 사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캄보디아 불교 사원의 론 심(Ron Sim) 이사는 법회를 봉행할 정식 사원이 없어 거주 중인 주택 지하실에서 모여 작은 법회를 봉행해던 때를 회상하며 “300여 명의 불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감회가 새롭다. 오늘은 캄보디아계 캐나다인의 다음 세대가 지역 사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팀 소(Tim So) 불자는 “캄보디아 불교 사원은 국적, 나이, 성별, 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면서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질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불교 사원은 1970년대 크메르루즈 집권기에 발생한 참혹한 학살과 만행을 피해 캐나다로 이주한 캄보디아인이 주택 지하실에서 법회를 봉행한게 시작이었다. 인근 불자가 삼삼오오 모이자, 법회는 점점 커졌다. 협소한 지하실을 대신해 불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기도 했다. 불자들의 모연을 바탕으로 사원 건물 입찰에 성공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무료 3D뷰어로 불상 관찰

사진으로 호상 측정…절단면 표시


3D뷰어를 개발한 야마다 오사무 교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웹상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의 3D 이미지를 이용해 자세한 사이즈를 측정하거나 절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3D 아카이브 ‘나라 메모리’ 공개돼 화제다. 지난 7월 6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야마다 오사무 나라 현립대 교수가 개발한 3D 뷰어와 웹사이트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3D 데이터는 연구기관이 작성, 업로드하고 있으나, 상세한 3D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유료로 구독하거나 연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에겐 이용법이 한정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야마다 교수는 202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적인 실측 조사와 연구가 어려운 점과 대중적으로 3D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서 착안,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아카이빙 홈페이지(naramemory.jp)에 접속하는 것만을 사용 수 있는 3D뷰어를 개발했다.

야마다 교수는 3D계측을 이용한 불상 등의 문화재 수리의 전문가로 국내외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화에도 종사해 왔다. 이 경험을 살려 이번에 개발한 뷰어에서는 사진에서 가져온 불상 이미지의 상호나 세부표현의 크기 등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한편, 어느 평면에서 자른 때의 단면을 원하는 방향에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원근감이 있는 투시도법과 설계도에 사용되는 정투영법 형식으로도 표시를 전환할 수 있어 문화재 수리시의 설계도를 만드는데도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현재 샘플로서 국보를 포함한 불상이나 토우 등 13종류의 문화재 3D 데이터를 게시하고 있다. 야마다 교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외에도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직접 만질 수 없는 문화재들을 3D스캐닝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입체적의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